

蔚山地域 祭堂의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 熊村面과 江東面の 祭堂을 事例로 -

姜 惠 京

(奈良女子大學 人間文化研究科 博士課程)

西村 一朗

(奈良女子大學 生活環境學部 教授)

韓 三 建

(蔚山大學校 建築學部 助教授)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마을 단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洞祭에 관한 연구 가운데 특히 제사의 주공간인 祭堂¹⁾의 건축적 특성에 관하여 조사, 분석한 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洞祭는 마을의 안전과 주민의 안녕 및 풍작을 목적으로 하여 연중 1회에서 수회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제사이다. 이처럼 洞祭란 농촌 공동체에 친목과 결속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속학적 관점이나 민간 신앙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농촌 공동체의 현실적인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祭堂건축에 연구의 중심을 두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洞祭와 서낭당 관련

문헌에서는 건축적 관점에서 祭堂을 다룬 것이 드물고, 둘째, 본 연구 대상지역의 경우 祭堂건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증가하며 그 건축적 질도 높아지고 있고, 셋째, 따라서 洞祭의 대상이 당수나무²⁾에서 건물인 祭堂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넷째, 祭堂이라는 인위적인 공간이 마을 단위라는 기초적 공동체에 있어서 地緣에 바탕을 둔 많지 않은 공동공간이기 때문에 祭堂건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洞祭를 지내는 각 마을 단위의 祭堂은 그 기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洞祭가 예전부터 중앙이나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혹은 그 시대의 지배계층과는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洞祭는 저명 양반 마을에서는 그 의미가 축소된 경우가 나타나며 특히, 일제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미신타파 운동, 새마을 운동, 공업화 등에 의해서 祭堂을 비롯한 洞祭를 위한 공간이 훼손된

1) 祭堂이란 용어는 '洞神堂', '城隍堂', '서낭당', '산신당', '당집' 등과 함께 쓰이는 것으로 의미하는 대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동민들이 신앙하는 신격의 명칭을 따라 산신을 신앙하면 산신당이라 하고, 서낭신을 신앙하면 서낭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김태곤, 동신당, 대원사, pp.13-14, 1992).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祭堂'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따른다.

2) 당나무, 당수나무, 神木 등으로 불리는 나무로 서낭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나무이다. 한 그루에서 수 그루로 구성된다. 주된 당수나무로는 느티나무, 팽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등이 있다.

예를 보더라도 외부로부터의 공격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을 겪어온 제사공간이지만 울산군 지역³⁾에는 조사대상 289개 마을 가운데 253개 마을에 제사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군에 위치하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는 제사공간이 있으며 洞祭 또한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울산지역 제사공간의 구성요소로는 먼저 자연적 요소로 당수나무 혹은 당수나무군과 인공적 요소로는 제당, 부속건물, 장승, 벽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요소가 복합된 제사 공간도 있으므로 이들을 6개의 유형⁴⁾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농촌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洞祭와 그 洞祭가 행해지는 장소인 祭堂의 역할에 착목한 것으로 특히 祭堂공간의 건축적 특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울산지역의 祭堂건축은 일제시대부터 나타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특성을 가진 건축공간으로 유지·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울산지역 祭堂건축에 대하여 그 규모, 건립시기,

구조와 재료, 지붕형태, 향, 부지의 소유관계와 성격, 洞神의 명칭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지역적 특성과 시기별 건축특성을 밝혔다.

2. 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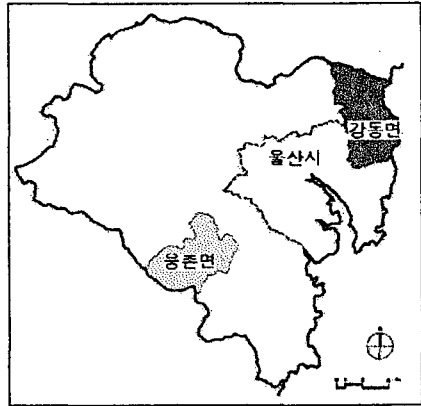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지역의 위치

본 연구에 관한 조사개요에 대해서는 기 발표한 일본건축학회 논문집⁵⁾에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본 논문과 직접 관련된 조사로는 99년 2월12일, 2월17-18일, 3월20일, 4월4일, 7월8일, 9월18일, 9월25일에 걸쳐서 제당의 규모와 향, 부지소유자, 건립시기, 洞神 명칭에 대한 실측 및 관찰조사와 마을의 노인과 이장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부지의 소유관계와 지목, 면적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군청과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발급 받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 발표된 논문⁶⁾에서 울산군 소재 각 읍·면별 祭堂에 대하여 건물의 구조, 지붕형태와 재료, 벽체, 출입문, 담장, 광장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 하였기 때문에 응촌면과 강동면(그림1)의 祭堂건축에 초점을 맞추

3) 본 연구에서는 199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울산통합시 울산군 지역을 조사지역으로 했다. 이 시기의 울산군은 12개 면과 2개 읍을 가지고 있었으며 울산시와는 성격이 대비되는 농촌적 성격의 행정단위이다. 이후 1997년 7월 15일자로 울산광역시로 되면서 강동면과 농소읍이 군에서 분리되어 울산시 북구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도 해당 지역의 특성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최근의 빈번한 행정구역 조정이 있기 전의 행정구역을 분석의 기준으로 하였다.

4) I형은 당수나무나 숲으로 이루어진 것, II형은 당수나무, 숲과 제당, III형은 제당 단독 공간, IV형은 당수나무와 숲, 제당과 부속건물이 모두 있는 경우, V형은 IV형에서 제당이 빠진 경우, VI형은 기타의 경우로 바위나 장승으로 된 제사 공간이다(姜惠京, 西村一朗, 韓三建, 韓國蔚山地域의農村集落における祭祀空間の構成に関する研究, 일본건축학회 계획계 논문집, 1999. 10).

5)姜혜경, 西村一朗, 한삼건, 전개논문

6)姜혜경, 西村一朗, 한삼건, 전개논문

어서 祭堂건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울산군의 14개 읍·면 가운데 웅촌면과 강동면의 제당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두 개 면이 洞祭공간 가운데 祭堂이 현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⁷⁾, 웅촌은 내륙지역에 위치한 면으로 농촌적 특성이 뚜렷하고 강동은 해안부에 위치한 면으로 어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특성도 함께 비교하기 위해서 이다.

<표1,2>의 각 항목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번지는 현지조사와 지형도, 지번약도, 지적도 및 주민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祭堂의 규모는 전면 폭(가로)과 내부 깊이(세로) 및 기둥 높이 또는 내부 바닥과 반자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건립시기는 상량문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그 가운데 ‘...년 경’이라든가 ‘...년 전’등으로 기록된 것은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지붕 형태 및 재료, 벽체 재료는 직접 관찰한 것이며 향은 나침반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토지 소유주는 해당 지번을 가지고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확인하였으며 직전제당구조는 기존조사(1992)에서 촬영한 사진과 관련 문헌 및 주민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위패내용은 직접 祭堂내부를 조사하여 위패에 써어진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당수나무는 樹種만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3. 祭堂건축의 특성 : 웅촌면과 강동면의 祭堂

3-1. 祭堂의 건립시기와 규모

7) 웅촌면은 22개 마을의 24개 제사공간 가운데 제당이 24개 있으며, 강동면은 19개 마을 22개 제사공간 가운데 제당이 23개 있다. 즉, 이들 두 개 면의 제사공간대비 제당 수의 비율은 47/46으로 약 102%이다. 반면에 울산군의 서부지역 6개 읍면의 경우 118개 제사공간 가운데 53개의 제당이 있어서 그 비율은 44.9%에 머물고 있다.

(1) 祭堂의 건립시기

일반적으로 祭堂건축은 처음에는 ‘神堂’과 ‘神體’를 겸한 당수나무가 존재했고, 이어서 조그만 堂건물이 생기기 시작하여 ‘神體(神木)’와 ‘神堂(건물)’이 분화하기 시작하고 그 ‘神堂’이 커지고 神木이 노후화하거나 비중이 작아져서 堂건물이 중심⁸⁾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 사례수도 ‘당수나무’가 가장 많고 ‘神堂+당수나무’형도 적지 않으나 神堂만이 있는 것은 그 수가 적다⁹⁾.

조사지역의 경우에는 당수나무와 들무더기로 된 곳이 웅촌면에 새검단 마을 한 곳이 있고, 강동면에는 남정자 마을의 장승과 화암마을의 바위로 된 제사시설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祭堂+당수나무’형식이다. 따라서 당수나무 형에서 제당과 당수나무 복합형으로 제사공간의 형식이 바뀐 것은 해방이후 시작되어 70, 80년대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祭堂만이 있는 경우는 웅촌면에서 두 곳, 강동면에서도 두 곳이 있다. 웅촌은 통천 마을처럼 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祭堂이 옮겨진 때문이고 강동면의 경우는 말라죽어서 이다. 그리고 다른 마을의 경우도 수해를 만나거나 기타 사유로 당수나무가 없어진 예가 있으나 모두 새로이 나무를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강동면 금천마을과 달곡 아랫마을은 수해로 당수나무가 유실되었지만 새로 심어서 가꾸었고, 웅촌의 저리 마을, 대북 마을도 각각 나무가 죽거나 일본인에 의해 베어졌지만 새로 심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9년에 문화재 관리국이 발간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경남¹⁰⁾에는 祭堂과 당목의 복

8) 張籥根, 한국의 神堂形態考, 『민족문화연구』 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4, P.179

9) 張籥根, 전계논문, P.180

표 1 江東面の 제당

리명	마을명	번지	가로 (m)	세로 (m)	면적	높이 (m)	건립 시기(년)	지붕 형태	지붕 재료	벽체 재료	향	토지 소유주	직전제당 구조	신체 또는 위패내용	당수 나무
어물리	금천	156	2.57	2.85	7.32	1.64	1971. 음6.7	우전각	기와 (세)	토벽 (목)	북>서5	사	동일	社神	평 (50)
	황토전	1002 (부근)	2.27	2.48	5.63	1.89	?	맞배	기와	세,플	북>동85	사	?	無	소
	구암	195	3.06	3.07	9.39	2.26	58.3,84.8 개축	평슬라브	슬라브	세,플	북>서60	울산광역시	토벽(목), 기와	無	소
구유	복성	산65	3.37	2.73	9.20	1.90	75-02-07	맞배	기와	세,플	남>동77	사	?	복성 洞社之神	평
	제전	43	3.71	3.68	###	2.20	72-08-28	팔작	기와 (접)	세,플	정서	구유동	토벽(목), 기와	제전 堂山神	소
	판지	307	3.01	3.18	9.57	2.43	50년,95정 개축	우전각	끝기와	적벽돌	남>서50	미동목지	토벽(목), 기와	한지	소
산하	산음 (도로)	526-11 (12)	2.76	3.04	8.39	2.37	50년,81 개축	평슬라브	슬라브	세,플	북>서80	울산광역시 북구	토벽(목), 기와	한지	소
	산음 (산)	629-1 (528)	2.75	2.49	6.85	2.05	50년,70년 대개	평슬라브	슬라브	세,플	남>서10	사	토벽(목), 기와	한지	서어
무룡리	주림	산83-2	2.68	2.40	6.43	1.87	70-03-03	맞배	기와	세,플	남>동63	사	동일	?	향
	달곡 (웃)	632(?)	2.90	2.68	7.77	2.35	혜방후, 88.7개축	맞배	끝기와	적벽돌	남>동88	무룡동	토벽(목), 기와	한지	평
	달곡 (아랫)	산30	2.28	2.31	5.27	2.14	1972, 3년	맞배	기와	세,플	남>서60	사	당수나무	里洞神(장)	소
신명리	신명1	?	2.59	2.61	5.20	2.50	7,98년 개축	우전각	기와		남>동40	?	토벽(목), 기와	?	無 (고사)
	신명2	산57	2.56	2.53	6.48	1.95	20년정도전	우전각	기와	세,플	남>동63	사	?	신명리 敷內神社	無 (고사)
경자리	북정자	61	3.00	2.74	8.22	1.93	100년,98 보수	맞배	끝기와 (청)	토벽 (목)	남>서10	사	동일	경자 洞社之神	평
신현리	신전 (양지)	203-1	2.82	3.23	9.11	2.03	57윤8,99 수리	맞배	기와	토벽 (목)	남>서20	사	동일	無	소
	신전 (음지)	125	2.48	2.31	5.73	1.95	65-08-09	맞배	기와	토벽 (목)	남>서80	사	동일	無	소
	구남 (산109)	855	1.85	2.32	4.29	1.84	66-08-06	맞배	기와	토벽 (목)	북>서67	사	동일	無	소
	장동	690	2.14	2.57	5.50	1.85	58-11-22	맞배	기와	토벽 (목)	남>동23	사	동일	창문	소
당사리	우가	108-1	2.58	2.69	6.94	1.77	20년전 복원	우전각	기와	토벽 (목)	남>동80	사	?47년전	창문	소
	당사	367	2.93	2.85	8.35	2.52	10년정도	팔작	끝기와 (접)	R.C	남>동60	당사부락	제단	토지신, 성황신	느티
대안리	하대안		2.41	2.16	5.21	1.72	73-10-29	우전각 (사모)	기와	세,플	남>서75	사	동일	성황대신 (창문)	소
	중대안		2.48	2.48	6.15	2.11	81-03-11	맞배	철판	세,플	남>동81	국 (재무부)	세,플, 기와	無	소
	상대안	363	2.60	2.42	6.29	1.87	25년전	맞배	슬래트	세,플	남>동63	사	당수나무	無	느티
평균			2.69	2.69	7.26	2.05									

*주:신명 1,2는 부부신

합형이 단 한 곳도 없는 것¹¹⁾으로 나타나 당시의 조사가 현지 답사와 같은 면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연구지역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祭堂은 일제

시대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강동면의 북정자 마을과 웅촌면의 서중 마을이 각각 '100년 정도', '일제시대부터' 있었다고 마을 노인들이 말하고 있다. 그 밖의 경우는 모두가

11) 이종철, 서낭당, 대원사, 1994, P.53의 표 재인용

10) 당시 울산군은 경상남도 울주군이였다.

표 2 熊村面の 祭堂

리명	마을명	번지	가로 (m)	세로 (m)	면적	높이 (m)	건립시기 (년)	지붕형태	지붕재료	벽체재료	향	토지 소유주	직전제당 구조	신체 또는 위패내용	당수 나무
대북리	오복	584-3외	1.90	2.15	4.09	1.83	53 (10년전수)	맞배	골기와	세.불	남>서5	국(재무부)	동일	洞守護主地神	상수리
	대북	156-2	2.49	3.11	7.74	2.07	해방직후 (97수)	우진각	청기와	적벽돌	남>서5	사	토벽(목),기와	大陽洞祭堂神, 한지	평
봉천리	봉천	산 106-1	2.97	2.90	8.61	2.09	1984.11	우진각 (사모)	기와	목 (세.벽돌)	북>동25	울산시	?, 덩 수물	前道堂上神, 後道堂上神	無
대대리	상대	산133	2.48	2.77	6.87	1.84	20년경도	우진각 (사모)	기와	토벽(목)	남>서10	사	?	태풍유실, 상대堂山神	향
	증대	산 147-2	2.12	2.42	5.13	1.78	?,1999 수리	맞배	기와(세)	세.불	남>동10	(사) 울산개발	동일	無	無
	하대	575-1	1.55	2.66	4.12	1.87	61-12-24	맞배	기와	토벽(목)	남>서46	사	동일	下塗 基地守洞神	서어
	저리	145-4	2.47	2.74	6.77	2.02	86-02-14	맞배	기와	RC (세.벽)	남>동10	사	토벽(목), 기와	精里洞禮上神	느티
	상대	916-1	2.38	2.94	7.00	1.78	1968. 윤7월	맞배	슬레이트	세.불	남>서70	사	동일	新安洞主神	소
초천리	초천	155-3	2.35	2.58	6.06	2.15	?,1993 개축	사각모임	기와	적벽돌	정남	국(재무부)	토벽(목), 기와*	徽井洞社神	느티
곡천리	동문	309-5	2.46	2.55	6.27	2.23	1958.92 수리	우진각	기와	토벽(목)	정남	사	동일	無	느티
	서중	산81-1	2.39	2.65	6.33	2.08	일제시,89개 축	맞배	골기와	RC (세벽)	북>동80	사	토벽(목),기와	土地神, 鄭,普,孔씨	벗
고연리	괴천	산119-7	2.90	2.90	8.41	2.15	?,96년 개축	맞배	골기와	적벽돌	정남	사	토벽(목),기와*	古野宕社神	평+ 서어
	와지	260	3.00	3.00	9.00	2.27	해방후, 96개축	평슬라브	슬라브	적벽돌	남>서70	사	토벽(목), 기와	와지洞野社	소
	관동 (연담)	1051	2.80	2.60	7.28	2.40	?,1997 개축	평슬라브	슬라브	세.불	남>서70	사	토벽(목), 기와*	?	소
	반계	산93	2.40	2.10	5.04	2.30	?,98년 개축	우진각	골기와	적벽돌	정북	반계 새마을회	토벽(목), 기와*	盤溪洞城隍神	소
은현리	은하	1037-30	1.90	1.90	3.61	1.79	54-07-15	우진각	기와	토벽(목)	남>동30	사	동일	?, 1세대표준양식	소
	서리	719	1.50	1.50	2.25	1.60	1960년경	우진각	기와	토벽(목)	정남	사	동일	無	서어
	덕현	248	3.40	3.20	10.88	2.30	?,1998 개축	우진각	골기와	적벽돌	남>서30	사	토벽(목), 기와*	?	느티
	덕산	309-1	2.90	3.70	10.73	2.30	?,95.12 개축	우진각 (사모)	골기와	적벽돌	남>서30	덕산 새마을회	토벽(목), 기와	德山洞神	소
	신암	산26	3.80	3.80	14.44	2.35	1961.96.1개 축	우진각	골기와	적벽돌	정북	사	토벽(목), 기와*	靈岩堂祀神	소
검단리	암곡	1118	1.80	1.90	3.42	1.80	1976	우진각 (사모)	기와	토벽(목)	북>서30	도로	동일*	岩谷高靈神	서어
	세검단	산37-1	2.10	2.10	4.41	1.75	1970년대	맞배	세멘트 기와	세.불(목)	정남	사	동일	無	향
석천리	석천	274	2.70	2.60	7.02	2.17	1965, 5-6년전	평슬라브	슬라브	세.불	남>서30	사	토벽(목), 기와	石川 洞中土地神	소
	석계	399	3.16	3.23	10.21	2.24	?,5-6년전 개축	평슬라브	슬라브	세.불	남>서5	채미저 (경지정리)	토벽(목), 기와	無	향
평균			2.50	2.67	6.90	2.05									

*는 전형적 양식(우진각), 덕현, 덕산마을은 부부신, 동문은 서중에서 분리

해방 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祭堂 건물은 해방 후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지어졌으며 특히, 웅촌면의 경우 80년대부터 90년에 걸쳐 전체 24곳의 祭堂 가운데 15군데가 개축되었다. 강동면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6군데가 신·개축되었다(사진1,2,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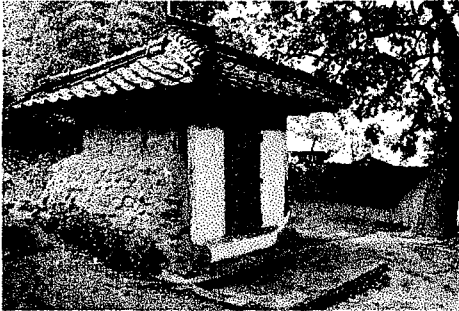


사진 1 웅촌면 괴천 마을의 제당(개축전)

이 시기에 웅촌면의 祭堂이 집중적으로 개축되고 있는 것은 해방 후에 지어진 祭堂의 물리적 수명이 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祭堂의 경우, 그 사용시기는 洞祭때에 국한되므로 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져서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대 祭堂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강동면



사진 2 웅촌면 괴천마을의 제당(개축후)

의 경우는 70년대에 이미 전체 祭堂 수의 절반에 가까운 10개가 신, 개축되어 전반적으로 웅

촌면보다는 건립시기가 당겨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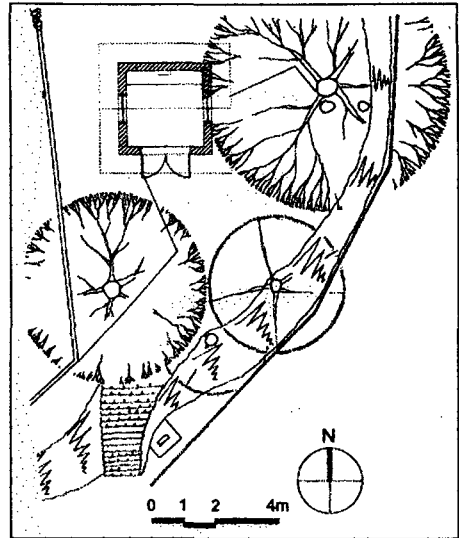


그림 2 웅촌면 괴천마을의 제당 평면도

(2) 祭堂의 규모

祭堂의 규모는 우선 칸 수면에서 봤을 때 조사된 모든 사례가 1칸이었다. 다만 면적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1평이 안 되는 것에서 4평이 넘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강동면의 경우는 최소 4.29㎡에서 최대 13.65㎡의 祭堂이 있으며 웅촌면은 2.25 - 14.44㎡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祭堂영역에서 제사가 아닌 물품수납 등에 사용되는 부속공간이 조사된 것은 강동면의 하대안마을 뿐이며 이 부분은 본 연구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표1,2>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는 祭堂만의 것이다. 전면폭은 강동면의 경우 제전마을 祭堂이 3.71m로 가장 크고, 웅촌은 신암마을 祭堂이 3.8m로 가장 크다. 이 두 祭堂은 깊이도 각각 가장 깊어서 3.68m, 3.80m이며 면적 또한 가장 넓다.

강동면 祭堂의 전면 폭과 안 깊이의 평균은 모두 2.69m이고, 웅촌면은 각각 2.50m와 2.67m이다. 면적도 강동면 祭堂 23 곳의 평균이 7.26㎡이며 웅촌면은 24개 祭堂의 평균이 6.90㎡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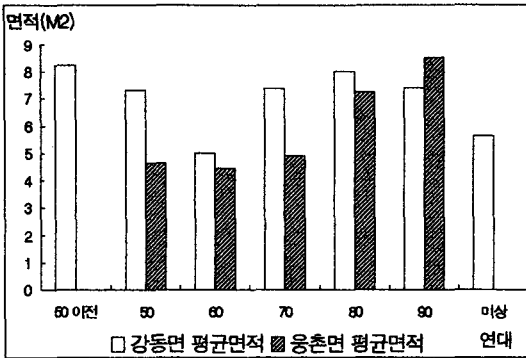


그림 3 건축시기별 제당규모

되어 강동면이 0.36m²가 더 넓다. 祭堂의 기둥, 혹은 반자 높이는 강동면의 祭堂이 1.64 - 2.52m 사이에 분포하고, 웅촌면은 1.60 - 2.40m 범위에 들어 있다. 높이의 평균값은 두 면 모두 2.05m로 동일하다. 따라서 강동면과 웅촌면의 祭堂 평균 규모는 각각 단 칸 구성으로 전면폭이 2.69m 와 2.50m, 실 깊이가 2.69m와 2.67m이며 높이가 2.05m이다. 즉, 규모 면에서는 해안부 마을과 내륙부 마을의 祭堂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또, <표3과 그림3>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祭堂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웅촌면은 60년대에 약간 줄어들었을 뿐 계속

표 3 건축시기별 제당 규모

신·개축 시기	강동면		웅촌면	
	평균면적	제당수	평균면적	제당수
50년대이전	8.22	1		
50년대	7.31	2	4.66	3
60년대	5.01	2	4.46	3
70년대	7.36	10	4.9	3
80년대	8.01	5	7.24	3
90년대	7.385	2	8.5	12
이상	5.63	1		
전체	7.26	23	6.9	24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동면 역시 초기의 사례 수가 적을 때를 제외하면 60년대 이

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은 농촌의 경제력 향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관되어 재래의 동답, 동산 등을 처분하면서 건축비가 마련된 때문으로 보인다. 60년대 이후 미신타파 운동과 새마을 운동 등에 따른 훼손이 없이 祭堂이 오히려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것은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2. 祭堂의 구조 및 형태와 재료

(1) 祭堂의 구조

제 1세대 祭堂의 구조는 목 구조임이 분명한데 70년대 이후에 신, 개축된 경우에는 조적조의 비율이 높다. 주로 세멘트블록으로 지어진 것인데 새마을 운동에 의한 건축재료의 변화가 원인으로 짐작된다.

먼저 목 구조의 경우는 낮은 기단 위에 주춧석이 놓이고 그 위에 높이 1.6m에서 2m정도의 목조 기둥을 얹은 다음 도리를 걸치는 형식이다. 도리나 기둥 모두 납도리와 사각기둥이 일반적이고 우진각지붕의 지붕 틀은 실의 가운데에 도리를 하나 더 걸치고 그 위에 대공과 목침처럼 짧은 종도리를 도리의 직각 방향으로 얹고 있다(사진3). 즉 중간에 걸치는 보는 입구에서 뒤 쪽으로 걸치지며 종도리는 가로 방향으로 얹히게 된다(사진). 이 종도리는 형식적으로 보일 정도인데 내부 천정은 제 천정으로 되어 있다. 외부 지붕은 용마루가 있어서 우진각처럼 보이지만 내부천정은 모임지붕 형식인 경우가 강동면에 1곳, 웅촌면에 4곳이 보이는데 워낙 祭堂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신, 개축된 祭堂의 구조는 조적조가 일반적이고 웅촌에 2곳, 강동에 한 곳이 RC조



사진 3 오복마을의 제당천정

반적이다.

(2) 형태와 재료

지붕은 평슬라브를 제외하고는 강동면의 중대안, 상대안 마을, 웅촌면의 상대5반 마을 이외에는 모두 기와로 되어 있다. 기와의 종류별 사례 수는 골기와가 강동면 4곳, 웅촌면 8곳이며 세멘트 기와가 강동면 1곳, 웅촌면 2곳이며 나머지 20곳이 보통기와로 이것이 일반적인 지붕재료임을 보여준다.

지붕형식은 강동면은 맞배가 12곳, 우진각이 6곳이며 기타 팔작과 평슬라브가 있다. 웅촌면의 경우는 우진각이 11곳이고 맞배가 8곳이다. 슬라브 4곳은 인접한 마을 2곳이 각각 채용하고 있어서 마을간의 영향을 엿보게 한다. 웅촌면 초천마을의 개축된 제당은 절병통을 얹은 사모지붕으로 조사지역에서는 유일한 형식이다. 이처럼 지붕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웅촌면은 우진각, 강동면은 맞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목조 제당의 벽체는 중방과 하방이 가로로 걸쳐지고 그 사이에는 산자를 엮어서 흙

를 채용하고 있다. 또 구조는 조적조를 채용하면서 지붕을 R.C로 처리하는 예도 많다. 평슬라브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적조로 개축된 경우 기와지붕의 지붕틀을 R.C로 하는 것이 일

을 바르고 회칠로 마감하고 있다. 웅촌면의 경우는 외벽 허리 부분에 흙돌벽을 채용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관찰되었다. 전면부는 판자벽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 개축된 제당의 외벽은 조적조의 경우 붉은 벽돌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제당내부 바닥은 흙바닥이며 내부 장식은 없고 다만 제상이 나무, 혹은 세멘트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간혹 창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채광용은 아니고 제당과 당수나무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문은 판장문이 일반적인데 쌍여닫이와 외여닫이가 있다. 후자는 초기 제당이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채용된다. 웅촌면에 4군데, 강동면에는 10군데가 외여닫이 문을 갖추고 있다. 그밖에 제당부지에 담장이 있고 거기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강동면에는 북정자, 산음(도로 쪽), 당사, 제전 마을이 이 경우인데 주로 규모가 크고 시가지에 가까운 경우이다. 또, 웅촌면의 경우는 오복과 대복 마을 두 곳이 이에 해당하는데 두 면의 경우 모두 최근에 수리를 하면서 만든 것이다.

전반적으로 강동면보다는 웅촌면의 제당에 유형적 특징이 드러난다. 제1세대 제당은 우진각 기와지붕, 목구조, 흙벽+흙돌담허리벽, 판장문이 기본적인 형태이다. 제2세대 제당은 붉은 벽돌을 주 건축재료로 사용한 예가 두드러진다. 반면에 강동면의 경우는 특징적인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3-3. 제당의 향

제당의 위치는 대체로 마을의 중심, 마을의 입구, 마을 주변의 마을이 부감되는 구릉 위 등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입구형'의 경우 현재

의 마을구조와 이전의 그것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祭堂 주변의 지형이나 상황이 바뀐 경우도 많아서 지금은 논이지만 과거에 밭이거나 언덕이었으며 경지정리 등으로 마을 진입로가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祭堂의 위치 및 마을과의 관계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祭堂의 절대방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祭堂의 입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마을길과 수로 및 주변 지형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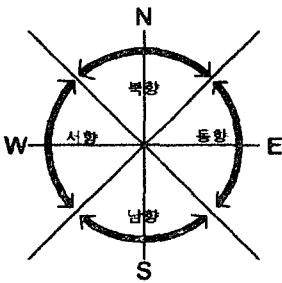


그림 4 제당의 방위 판정

먼저 방향은 <그림4>와 같이 남동향, 북서향 같은 구분은 피하고 동, 서, 남, 북향으로만 구분했다. 이유는 위의 <표1,2>에 상세한 방위를 수치로 표시해 두

었고, 상세한 분석은 祭堂과 마을과의 연관관계를 고찰할때로 미루기 위해서이다.

다음 <표4>에서 보면 웅촌면은 남향이 24개 중에 18개를 차지하여 75%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동면의 경우는 동향이 23개 祭堂 가운데 9개로 가장 많아서 39%정도이다. 강동면의 경우는 서향도 8곳이어서 이들 두 유형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다.

특히, 강동면의 동향 祭堂 9개 가운데 5군데

표 4 제당의 향

	강동면	웅촌면
동향	9(5)	1
서향	8	2
남향	5	18
북향	1	3

*주 ()의 숫자는 바다를 바라보는 경우

는 바닷가에 있는 제당으로 동해를 향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동향인 나머지 4곳도 이 지역 지형이 바다인 동으로 열린 골짜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향인 경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데 강동면과 울산시 중구의 경계인 서쪽에는 무룡산을 주봉으로 하는 산지가 남북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들 산을 바라보는 좌향을 택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웅촌면의 경우 역시 지형이 남북으로 열려 있으면서 마을과 산의 거리가 가까워서 동서의 산을 바라보는 좌향보다는 골짜기가 열린 남향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4. 洞神

(1) 位牌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본래의 祭堂은 제사의 대상이 되는 당수나무와 그 주변의 제사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건물인 祭堂이 생겨난 것이 조사지역의 경우 일제시대로 짐작되며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마을에 건축이 완료된다. 이렇게 제사대상이 종래의 당수나무에서 祭堂내의 어떤 것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제사 대상이 위패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사진4).

강동면의 경우는 내부가 확인된 19곳 가운데 8곳에 위패가 보이는데 洞神, 洞社神, 성황신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웅촌면은 16군데에서 위패가 보여서 내부가 확인된 21곳의 76%에 이르러 해안지역인 강동면과 대조를 이룬다. 웅촌면의 위패에 씌어진 洞神의 명칭은 다양한데 洞神, 堂山神, 성황신, 土地神으로 정리된다.

특히, 웅촌면 서중마을은 토지신외에 鄴, 昔, 孔씨라는 마을 개척신을 모시고 있어서 주목된다. 나머지 마을의 경우도 명칭은 다양해도 울산지역에서 洞神을 보통 ‘골매이 할배’, ‘골매이

할때' 등으로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 개척신을 신격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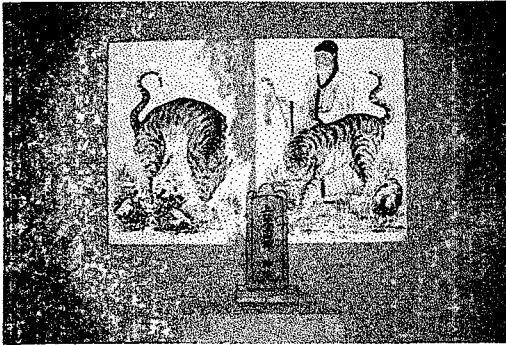


사진 4 삼대 마을의 위패

또 韓紙를 神體로 한 것은 웅촌면에서는 유일하게 대북마을 祭堂에 '祭堂神'이라는 위패 외에 성주신¹²⁾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강동면의 경우는 4개 마을에서 위패 없이 韓紙 백지를 神體로 모시고 있다(사진5). 강동면의 경우는 확인된 19곳의 절반이 넘는 10곳에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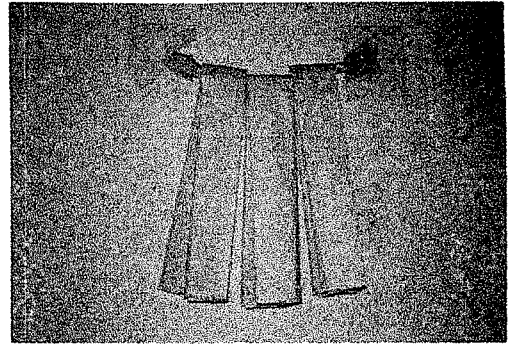


사진 5 달곡(윗) 마을의 한지로 된 神體

패나 다른 神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당수나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4군데의 祭堂이 당수나무 쪽으로 창을 내어서 당수나무가 神體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달곡 아랫마을과 하대안 마을은 각각 '里洞神'과 '城隍大神'이라는 위패를 갖추고 동일한 유형의 창을 둔 것으로 보아 과도기적인 형식으로 생각된다.

(2) 당수나무(사진6)

당수나무는 조사지역내의 거의 모든 마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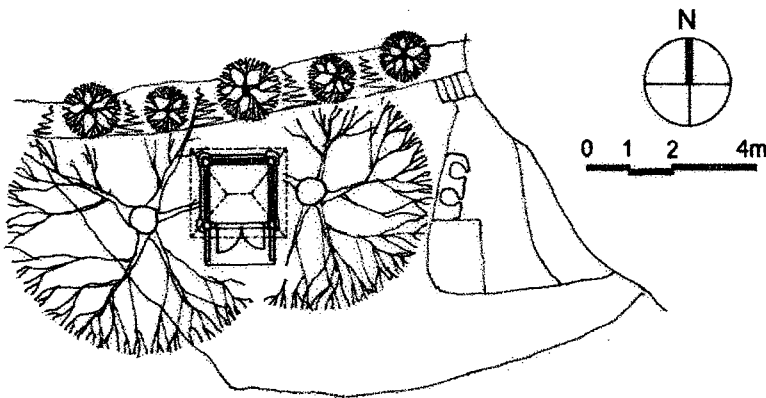


그림 5 서리마을 제당

12) 웅촌면 대북리 260번지 김용규 노인 증언. 현, 祭堂관리인.

제사공간에 존재한다. 祭堂건물이 없이 나무만 있는 곳은 웅촌면의 새검단 마을로 서어나무

표 5 당수나무와 제당의 상대적위치

	강동(%)	웅촌(%)
제당의 정후방	13(61.9%)	10(45.5%)
제당의 측후방	1	4
제당의 좌측	2	2
제당의 우측	5	2
제당의 전방		2
지정곤란		2(하대)

근과 돌무더기로 되어 있다. 한편, 당수나무가 없는 제사공간은 강동면과 웅촌면에 각각 두 마을씩 있다. 강동면 신명마을의 두 제당이 나무가 없는데 모두 나무가 말라죽었다고 하며 웅촌면의 통천마을 당수나무는 일제시대 때 배를 만든다고 배 내었다¹³⁾하는데 대북 마을의 직전 당수나무도 비슷한 얘기가 전해온다.

당수나무의 수종은 해안지역인 강동면의 경우 소나무가 가장 많아서 12곳이 되어 약 52%를 차지한다. 팽나무와 느티나무는 각각 4곳과 2곳이다. 반면에 내륙지역인 웅촌면도 소나무가 8곳으로 가장 많으나 느티나무, 서어나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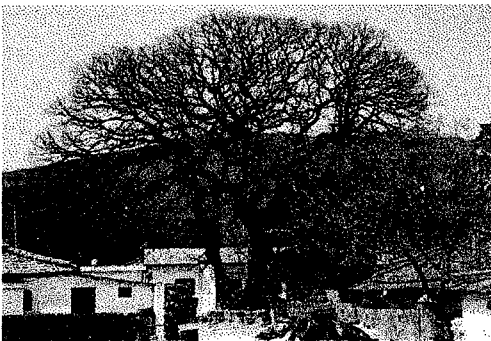


사진 6 달곡(윗) 마을의 제당과 당수나무

각각 4곳 씩, 향나무가 3곳, 팽나무가 2곳, 상수리나무가 1곳, 빛나무가 1곳 등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특히, 웅촌면 서중마을은 빛나무를 당수나무로 하는 특이한 예인데 일제시대

때 수난을 피하기 위해서 심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당수나무와 祭堂의 상대적 위치(표5)를 보면 강동면의 경우는 祭堂의 정 후방에 위치하는 것이 13곳으로 62%를 차지하며 웅촌면의 경우는 45.5%인 10곳이 정 후방에 위치한다. 특히, 웅촌면의 경우는 祭堂의 전방에 당수나무가 오는 예도 2곳이 있으나 강동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수나무가 제사대상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좌우나 전방에 당수나무가 오는 경우는 부지의 깊이가 좁은 경우처럼 부지의 제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수나무의 본 수는 1본에서 수 본까지 다양하나 연구대상 지역의 경우는 웅촌면 서리마을이 2본(그림5)이고 나머지는 1본으로 되어 있다. 숲을 이루고 있는 祭堂영역이라도 당수나무는 1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3-5. 토지소유

祭堂영역의 토지가 누구의 소유이냐에 따라서 마을 제사공간의 활성화가 점쳐질 수 있다. 이전부터 존재해 온 마을 제사공간은 조선토지조사사업이후 토지 소유권의 證明제도를 고치면서 기존의 마을 주민이 공동 이용하던 토지 등이 개인 소유 혹은 국유지로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마을의 공동소유였던 제사공간 부지가 개인 소유가 된 경우가 많다. 웅촌면 서중 마을의 경우도 유력 성씨들이 제당 부지를 소유했는데 최근에 마을 소유로 환원된 것으로 안다는 주민 대답이 있었다.

이번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祭堂 부지 47곳의 66%에 해당하는 31곳이 사유지로 확인되었다. 이들 사유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마을소유였는데 이장이나 마을 지도층 주민 수

13) 차기준(70세)씨 증언

명의 연명 등으로 된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소유나 마을 새마을 영농회 등의 소유로 된 곳은 웅촌면이 두 곳, 강동면이 세 곳으로 모두 5군데이며 나머지는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국, 공유지도 일제시대 때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마을 소유에서 편입된 것으로 짐작된다.

도시화가 진전된 곳에서 관찰되듯이 祭堂부지와 주변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 祭堂 영역이 고층건물로 위요되거나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 주변에서의 시각적 인식은 물론 접근이 곤란해지고 심지어는 제사공간이 사라지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면 현재의 祭堂공간 보존을 위해서 부지의 마을 공동소유는 물론 주변부에 대한 개발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것이다.

또 祭堂부지가 사유지인 논,밭의 한 부분에 위치하거나 하천부지, 도로부지, 언덕 같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공부상의 면적을 구하기는 힘이 든다. 또, 담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영역을 어느 범위로 한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祭堂영역은 평균적으로 2,30평에서 4,50평의 면적이 주류를 이루고 넓은 것은 500평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한다¹⁴⁾. 조사 대상지의 경우도 이러한 범주에 들지만 현재로는 정확한 면적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4. 결론

조사지역의 경우 祭堂건축은 해방 후부터 시작되어 60년대 이후 보편화되고 있다. 현존하는 祭堂의 면적은 해안과 내륙이 모두 7㎡내외

로 비슷하나 건축시기는 해안지역인 강동면이 앞서고 각 시기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인다. 웅촌면의 제1세대 祭堂은 우진각 지붕, 목구조, 토벽이 특징적 형태로 드러났다.

1980년대 말 이후 개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축된 祭堂의 경우는 목조, 토벽에서 적벽돌과 R.C조를 채용하는 등 그 규모와 함께 질도 크게 우수해 지고 있으나 칸 수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1칸을 유지하고 있다. 지붕재료는 기와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마을 경제력의 증대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洞神은 대부분이 위패로 모셔지는데 내륙지역인 웅촌면에 위패를 모신 祭堂이 많았고 그 명칭은 두 면 모두 다양하게 나타났다. 祭堂부지는 사유지가 많으나 새마을 회관과 함께 마을의 공동공간으로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유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祭堂의 향은 해안지역인 강동면은 바다 혹은 끝짜기가 열린 동향이 많고 내륙지역인 웅촌면은 남향이 다수를 차지했다. 당수나무의 수종은 강동면과 웅촌면 모두 소나무가 우세했으며 웅촌면의 수종이 더 다양했다. 祭堂과 당수나무의 위치관계는 祭堂의 뒤쪽에 당수나무가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참고문헌

1.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2. 秋葉隆, 朝鮮民俗誌, 六三書院, 1954
3. 울산문화원, 울산울주향토사, 1977
4. 울산문화원, 蔚山地名史, 1986
5. 일본건축학회편, 圖說集落, 都市文化社, 1989
6. 李有壽, 울산향토사연구, 울산울주향토사연구회, 1991
7. 김태곤, 동신당, 대원사, 1992

14)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P.167

8. 강혜경, 韓國の農村におけるコミュニティとその空間に関する研究、奈良女子大學修士學位論文、1993
9. 朱剛玄, 張正龍, 조선땅 마을지킴이, 悅話堂, 1993
10. 박호원, 서낭당, 대원사, 1994
11. 최길성, 한국 무속의 이해, 예전사, 1994
12. 金學範, 張東洙, 마을숲, 悅話堂, 1994
13.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4
14. 국립민속박물관,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 1997
15. 주거학연구회, 새로 쓰는 주거문화, 주거학회, 1998
16. 이이화, 역사풍속기행, 역사비평사, 1999
17. 姜惠京, 西村一朗, 韓三建, 韓國蔚山地域의 農村集落における祭祀空間の構成に関する研究, 일본건축학회 계획계 논문집, 1999. 10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 of JE-DANG in Ulsan

Kang, Hye Kyung

(Graduate Student, Graduate Division of Human Culture of Nara Women's Univ.)

Nishimura, Ichiro

(Professor, Nara Women's University)

Han, Sam Geon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architectural character of JE-DANG at farm village in Ulsan. JE-DANG means the building for DONG-JE (the sacrificial rite of a village). The regions of this study are KANG-DONG MYEN, and UNG-CHON MYEN in Ulsan.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them after the actual field surveys of 47 JE-DANGs in these regions. The survey contains the area, the height, the period of the erection, the architectural structure, the roof shape, the material, the landowner, SHIN-CHE (means a god's name and shape), DANG-SU tree and so on. Methods of the survey are the field survey, the interview of villager, the analysis of reference data and so on.

Results of the study are below.

JE-DANGs (buildings) of these regions had been built first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 and erections of them had continued until 1970's. Since then, they have been rebuilt. The primary JE-DANG is characterized by a tiled roof, a wooden post lintel, a mud-plastered wall, and a wooden door. After rebuilding, characters are a flat slab, a tiled roof, a structure of using red bricks, and the area is getting larger than the primary JE-DANG, but 1 KAN persists without variety.

Most of houses in the inland area like UNG-CHON MYEN face the south, and ones in the coastal area like KANG-DONG MYEN face the east. Generally there is DANG-SU tree behind JE-DANG. That proves DANG-SU tree to be the object of the rite. The species of DANG-SU is a pine in general, but various in UNG-CHON MYEN.

In general names of the god are DONG-SHIN, DANG-SAN SHIN and SUNG-HWANG SHIN. I think that the landownership of JE-DANG should change the private ownership into the village ownership to preserve JE-DANG though most of lands of JE-DANG are private ones.